

## 연변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 대학생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

고영근 · 조윤수 · 박인수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 11期 3中全會에서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개혁·개방정책 하에서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중국은 지난 17년동안 경제분야를 위시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사회는 엄청난 변모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면적인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정치, 사회의식 등 내면적인 각종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으로서는 우리 한민족이지만 국적으로서는 중국인인 조선족 대학생들이 어떠한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해보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아 매우 흥미있고 의의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본문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의 조선족 대학생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를 연구테마로 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는 1995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연변조선족 자치주네의 연길시에서 연변대학의 조선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설문조사에서 얻은 1차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들 조선족 대학생들은 중국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과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 정치태도형성의 매개체인 정치사회화의 제기구 중, 언어생활과 대중매체, 동료집단 및 학교 등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들의 정치태도 형성요인을 고찰한 후 정치태도 표출을 정치태도의 표출(I)과 정치태도의 표출(II)로 나누어 다루었다. 정치태도의 표출(I)에서는 중국국민인 이들 조선족 대학생들의 사회,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와 중국 정치 지도자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정치태도를 분석했다. 정치태도의 표출(II)에서는 이들이 조선족으로서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의식, 민족지도자상 및 한반도통일관 등 민족의식과 연관된 정치태도를 분석했다.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 I. 서론

### 1. 연구동기와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 대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 의식 및 그들의 민족 정체성, 민족 통일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선족 대학생의 정치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을 두었다.

중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으로는 우리민족의 해외 거주지로서 가장 많은 동포를 이 살고 있는 국가이다. 해외 동포의 숫자는 대략 5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약 2백만 명이다.

중국은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인 91%가 漢族이고 나머지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조선족은 2백만 명으로 소수 민족중 12번째로 큰 소수 민족이다(李光奎, 1994; 57). 조선족은 중국의 각 省에 거주하고 있지만 특히 동북3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길림성에 110만명, 흑룡강성에 46만명, 요녕성에 18만명 그리고 내몽고 자치주에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성과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는 주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가 이미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최근에는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분야별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인류학, 사회학의 시각에서 연구된 성과로는 김광억 교수가 편집한 “중공 한국 교민 연구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7), 전경수 교수가 쓴 “중국 동북의 조선족: 民族誌的 개황”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홍승직 편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구”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8), 이채진의 “중국 안의 조선족” (서울: 교양사, 1988), 이광규의 “재중한인: 인류학적 접근” (서울: 일조각, 1994), 한상복·권태환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1993) 등이 있다. 정치학의 시각으로는 조정남의 “중국의 민족정책” (서울: 교양사, 1988), 강명상의 “중공의 소수민족 정책” (서울: 용성출판사, 1988)이 있고, 경제학 분야로는 심의섭·최용학·강희정의 “중국 동북 경제론” (서울: 삼문출판사, 1994)이 있다. 그밖에 자연 과학적 접근으로는 이호영·신승철·이동근의 “연변조선족 사회 정신의학 연구” (서울: 토담, 1994)가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조선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학적

시각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연변 조선족에 문제에 대해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학적 시각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 대학생의 사회의식·정치의식 및 참여, 정치 지도자상, 민족 정체성, 민족 지도자상, 한반도 통일관에 등 대한 실증적인 고찰을 통해 조선족 대학생의 정치태도를 분석하는데 두었다.

## 2. 연구방법 및 설문조사

###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정치문화 접근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취했다.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치태도라는 개념은 사회심리학에서 파생되어진 것으로서 정치 대상과 정치상황에 대한 인지·감정 및 행위 정향을 가리킨다. 이른바 정치대상은 정치 체계 전체, 정치 체제 속에서의 각종 역할, 역할 담당자, 정치 체계내에서의 자기의 역할, 정치 법칙, 정치 체계의 투입과 산출을 포함한다. 정치 상황은 특정 시공의 정치 현황을 의미한다. 정치 태도는 일종의 가설 개념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외부로 드러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견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정치태도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정의를 내린 사람은 심리학자인 Allport였다. 그에 의하면, 정치태도란 정치적 인지·정치적 감정 및 행위정향으로 구성된 일종의 심리 또는 생리조직으로서 개인의 관련 정치 대상과 정치상황에 대한 반응을 인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1)</sup> 그외 Newcomb은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인지, 감정 및 행위정향이며, 태도의 표출은 모종의 대상에 대한 인지를 통해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며 그같은 가치판단을 통해서 행위정향이 생김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태도란 그 사회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의미있고 타당성이 있는 상징물(symbols)에 대해 지니는 政治的 定向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정향이란 행위자(개인이건 집단이건)가 정치적인 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정치학연구에서 정치문화 접근방법을 최초로 사용한 Almond와 Verba는 정치태도 즉, 정치적인 정향은 다음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 ① 認知的 定向 ; 정치체계·정치체계안의 각종 역할·역할 담당자·투입과 산출에

---

1) Gordon W. Allport, "The Composition of Political Attitu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xxv, (1929) pp. 220-238

대한 지식과 신념을 말한다. ② 感情的 定向: 상술한 정치적 대상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③ 評價的 定向 : 가치기준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및 의견을 말한다.<sup>2)</sup> 따라서 정치태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국가에 대한 태도(국민적 일체감) · 정치지도자 또는 국민적 영웅에 대한 숭상 · 시민의 정치적 열망 ·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표명된 정치 사회 의식 · 정치 스타일 · 정치적 정서가 포함된다.<sup>3)</sup>

본 연구의 대상인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은 개혁 개방 정책의 시작을 전후해서 태어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개혁 개방 세대들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급격히 변동하는 정치 상황은 그들의 자아의식, 개인적 가치관, 사회와 국가를 보는 관점 등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 대학생들은 중국 국민이자 동시에 소수 민족으로서의 독특한 정치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들의 정치태도를 형성해주는 정치 사회화의 제기구들 즉, 언어 생활 · 대중 매체 · 동료집단 및 학교 등의 정치태도의 형성 요인을 고찰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소수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정향 즉, 정치 태도의 표출을 중국인으로서의 정치 태도와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치태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본 논문은 상술한 정치태도의 개념과 조선족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에 의거하여 제 3장인 정치태도의 표출 (I)에서는 사회의식, 정치 의식 및 참여, 정치 지도자상을 분석했고, 제 4장인 정치태도의 표출 (II)에서는 민족 정체성 의식, 민족 지도자상, 한반도 통일관을 분석했다.

## (2) 설문 작성과 조사대상

현지 설문 조사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지의 문항, 내용 및 영역 등에 대해 수차의 토의를 거쳐서 설문지를 작성했다. 또한 완성된 설문지를 사전에 중국 현지로 보내 중국 공동 연구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설문지는 본 문항앞에 응답자 개인의 기본적 자료로 10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의 성별, 출생 연도, 학년, 전공, 첫 이주자로부터 경과한 세대, 주로 성장한 지역, 중국 이주 제1대의 출신지역, 한족 초중 고등 학교 수학 유무 여부, 수학했다면 수학 년수, 부모의 직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 대상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에 소재하는 조선족 대학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2) Almond and S. verba,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1963) p. 14

3) 백완기, “정치 사회화와 정치 문화”, 「현대정치 과정론」(서울: 法文社, 1985) p. 92

있는 연변대학에 재학중인 조선족 대학생으로 국한하였다. 설문에 응한 조선족 대학생 수는 모두 162명(남학생 49명, 여학생 113명)으로 연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방송통신 대학에 해당하는 함수대학(函授大學)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그들의 전공은 어문학 전공이 95명이고, 사회과학이 58명, 그리고 자연과학이 11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문학 전공 학생중 전체 조사대상의 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1명이 조선어 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외에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전공 순이었다. 사회과학 전공 학생 58중 34명이 신문방송학전공자이고, 그 외에 법률·정치·경제·역사·기업관리·철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11명으로써, 그들의 전공은 컴퓨터공학·물리학·화학·수학 등이었다.

그들의 성장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는데, 농촌 지역의 범주는 都市이외의 모든 행정단위 즉, 鄉(面에 해당)과 鎮(邑에 해당)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도시지역 성장학생은 57명, 농촌지역 성장학생은 105명이다.

漢族학교의 수학 유무는 총 162명 학생중 137명은 수학경험이 없었으며, 25명은 수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漢族 학교 수학 년수 4년 이상을 수학유무의 기준으로 삼았다.

부모의 직업은 부모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父의 직업에 따라 구분했다. 즉, 전문직 종사자(의사·교원·기술자 등)가 54명이고, 당·정·군 관리(당·정관리, 국유기업 직원, 군인)가 40명, 1차 산업 종사자(농업·이업·수렵·별목업등)가 42명, 기업체 직원(외국 합작기업직원, 항진 기업직원)이 9명, 자영업(운전수·관광업·個體戶등)이 12명, 기타는 5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총 38항으로 만들었고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영역은 정치태도의 형성 요인과 연관된 문항으로써 총 9개이고, 소수 민족이자 동시에 중국 국민인 조선족 대학생들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겪게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정치사회화 제기구 즉, 언어생활과 대중매체, 소년선봉대와 공청단(共青團) 및 학교 등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태도 형성 요인을 고찰했는데 이것이 본 논문 제 2장의 내용이다.

두번째 영역은 정치 태도의 표출 (I)에 대한 12개의 문항으로써 조선족 대학생들의 사회 의식, 정치 의식 및 참여, 중국 정치지도자상에 대한 분석으로 본 논문의 제3장 부분이다.

셋째 영역은 정치태도의 표출 (II)에 대한 문항으로 총7개의 문항이 있으며 분석 내용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 정체성 의식, 민족 지도자상 및 한반도 통일관 등으로서 본 논문의 제 4장에 해당한다.

### 3. 연구수행에 따르는 제한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외국 학자로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의 현지 설문 조사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진다. 더구나 근래에 한국인들의 연변지역의 빈번한 왕래를 중국 정부 당국은 조선족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자기들의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여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 측 공동연구 교수는 이같은 연구 여건 하에서 학교 당국 협조하의 공식적 조사는 불 가능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득이 비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995년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12일동안 이루어진 중국 현지 조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전적으로瀋陽에서 부터 延吉까지 동행한 중국측 공동 연구 교수의 협조에 의해서 가능했다. 조사 기간중 연변 대학도 겨울 방학중이라서 학생을 모으고 접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와 동행한 연변대학 출신의 공동연구 교수의 도움으로 연변대학 조선족 교수를 소개받고 그로 인해 조선족 교수연구실 및 학생 기숙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연변대학 조선족 교수들과의 몇 차례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성공적인 설문조사를 위한 토론 및 자문을 구했다. 본 설문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몇 분의 연변대학 조선족 교수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준데 기인하며, 이에 대해 추운날씨에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신 조선족 젊은 학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중국 현지 사정에 의한 설문 조사의 어려움에 뒤따른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최초 70여개 문항중 내용상 정치적으로 예민하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는 문항은 삭제하고 45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를 사진에 현지에 보내 중국측 공동 연구 교수의 자문을 구했으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근래의 예민한 현지 사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재차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38개 문항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본 연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중국측 공동연구 교수 및 연변대학 조선족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가는 현지 조사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문문항의 대폭적인 축소는 본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제한점이었다. 또한 연구진은 설문 문항의 내용작성 및 어휘선택에 있어서 응답자에게 부담될 수도 있는 내용은 최소화했고 조선족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상언어로 설문을 작성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언어는 북한식의 함경도 사투리와

중국어 단어가 그대로 音譯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설문지 작성시 묻고자하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 표현과 어휘선택에도 적지 않은 애로가 따랐음을 밝힌다.

## II. 정치태도의 형성 요인

인간의 정치태도는 정치사회화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화는 가정·학교·동료집단 및 대중매체 등 사회화기구들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에 의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 양식이 형성되어지는 발전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태도 즉, 정치문화를 형성시켜 정치체계의 유지 및 정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정치 사회화의 제기구 중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이 겪는 언어 생활과 대중 매체, 동료집단 및 학교등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들의 정치태도 형성 요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언어생활

본 절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대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언어생활에 대해서 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한어와 조선어중 어떤 말이 더 사용하기 편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용언어의 편리성에 대한 차이

학생	언어	사 용 언 어		
		조 선 어	중 국 어	똑 같 다
전체		96명 (59.3%)	37명 (22.8%)	29명 (17.9%)
농촌 출신		48명 (56%)	20명 (23.5%)	17명 (20%)
도시 출신		35명 (65%)	12명 (21.1%)	10명 (17.5%)

자료 : 1995년 연변자치주 조선족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하 특별 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자료는 1995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둘째, “가정에서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이다. 이 문항

〈표 2〉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언어

조선어	106명	65.4%
중국어	10명	6.2%
혼용	45명	27.8%
무응답	1명	6.0%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족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결과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약 60%에 이르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조선어 사용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선호하는 일상언어의 비율도 조선어가 65%, 중국어와 2개 언어의 혼용을 합한 비조선어는 34%를 차지했는데 이는 〈표 1〉의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수치를 4년전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sup>4)</sup>와 비교할 때,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중 조선어 사용자는 상당히 감소됐고, 반면에 한어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조선어가 34%로서 비록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지만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의 중국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같은 중국어 중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치적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의 일환인 언어의 이중정책에 기인한다. 조사대상인 조선족 대학생들은 대개 20대 초반에서 30대 미만의 연령층으로 그들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당시 중앙 정부의 지방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소수 민족 정책에 따라 이중 언어정책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여건 하에서 학교 교육을 받아왔다. 그 결과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 정체는 조선족이지만, 한편 그들은 중국어를 중시하는 언어생활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민으로서의 사회화의 과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국가적 정체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서 1970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는 다양한 방면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중국사회에서의 개혁·개방세대에 속하는 조선족 대학생들은 그들의 사회적 진출과 취업 및 개인활동 영역의 확대 기회로 인식했다. 또한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중국어의 언어능력은 그들의 사회적 성취(Social

4) 1990년 연변지역을 대상으로 한상복, 권태환 교수등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족중 일상어가 조선어라고 답한자는 74%, 중국어라고 응답한 자는 14%, 조선어와 중국어를 혼용한다고 답한자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조선어 95%, 중국어 2%, 조선어와 중국어 혼용이 3%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참조: 한상복,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대 출판부, 1994) p.217.

Achievement)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

연변지역의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은 현실 생활에서 조선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 생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함께 생활해야하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서와 사회적 진출을 고려할 때 언어생활의 이중성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선택이 된다.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은 조선족으로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에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지만, 학교 및 직장 등의 사회생활중 조선어의 사용은 갖가지 불편과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선족 대학생들은 일상 언어로써 점차 중국어를 선호하고 있다. 비록 연변 지역과 한국과의 경제, 문화·예술 및 학술 등의 교류증대로 부분적으로 조선어의 수요가 지속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학력 젊은 세대에 속하는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언어의 중국화는 필연적 추세이다.

## 2. 대중매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중언어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중매체 즉, 각종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도 소수민족의 언어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변지역에서도 조선어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도 조선어로 진행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주로 접촉하는 대중매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기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에 나름대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 관심 분야 등과 연관된 4개 문항의 설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1) 텔레비전

첫째, “가장 자주 접하는 언론 매체는?”이라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가장 자주 접하는 언론 매체

TV	120명	74%
라디오	30명	18%
신문	42명	25%

〈표 3〉의 통계로 부터 조선족 대학생들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빈도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은 북경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체제는 북경의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中央電視臺=CCTV)이 전국적인 방송망을 구축하고 있고, 각급 省단위로 지역적인 방송망이 구축되어 있는 이원적인 체제이다. 그리고 省급 아래의 소수 민족 자치주의 경우에는 지역방송망 아래 소수민족 언어로 하루에 1-2시간 정도로 제한된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처럼, TV는 기타의 대중매체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언론매체로서 생활전반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가장 크다. 이것은 실제로 두번째 설문인 “매일 고정적으로 보거나 듣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의 결과인 〈표 4〉에서도 알 수 있다.

〈표 4〉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TV프로그램의 유무

있다	102명	63%
없다	60명	37%

조선족 대학생 162명 중 63%에 해당하는 102명이 매일 TV를 시청하고 있음은 TV가 그들의 국내외 뉴스와 일상 생활정보수집의 주요 언론 매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 TV의 방송 내용을 자본주의 사회의 TV와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국가의 당면 정체 및 사회주의 이념을 고취하는 뉴스 및 과거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역사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처럼 TV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국내외 정보수집의 유용한 원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지식의 습득 및 정치태도의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신문

첫째, “주로 보는 신문은?”이라는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앞의 〈표 5〉와 같다.

〈표 5〉

주로 보는 신문의 종류

조선어 신문	38명	23%
중국어 신문	39명	24%
둘다 본다	85명	52%

전체 162명 중 과반수가 넘는 85명의 학생들이 조선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을 동시에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종류를 다 본다”와 “중국어 신문만을 본다”는 학생을 합치면 124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함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주요 정보 원천은 조선어 신문보다 중국어 신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문중 관심있게 보는 내용은 어떤 기사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복수의 답안을 선택할수 있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신문에서의 관심 분야**

국내 정치	76 회	27명
국내 경제	55 회	19명
국제 정치	92 회	32명
국제 경제	50 회	18명
국내 사회, 교육	43 회	15명
체육, 오락	37 회	14명
문화, 예술	103 회	37명

〈표 6〉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문기사중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분야의 빈도수 중 문화·예술이 가장 많은 103회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도 문화·예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때 전체 162명중 여학생이 113명의 절대 다수라는 점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 대학생들이 관심있게 보는 신문 내용으로는 국내외 정치가 168회, 국내외 경제는 105회 등으로 비교적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국내외 정치·경제 문제 등에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라디오

“가정에서 주로 듣는 라디오 방송은?”라는 설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주로 듣는 방송의 종류**

조선어 방송	58명	35.8%
한어 방송	52명	32.1%
남한 방송	48명	29.6%
북한 방송	4명	2.5%

(중국어 방송: 조선어 방송 = 52:110)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들 중에서 라디오는 도시와 농촌, 집거지역과 산재지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잇점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라디오의 방송전파는 장애가 없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실제로 연변지역에는 중국 현지의 조선어 방송이외에 남한의 한국어 단파 방송 및 북한의 단파 방송 등에 모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방송들이 모두 깨끗하게 청취된다.

앞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족 대학생들이 가정에서 주로 청취하는 방송은 북한 방송보다는 남한의 단파 방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일 방송으로는 중국어 방송을 청취하는 숫자가 가장 많지만 이를 중국어 방송과 비중국어 방송 즉, 남북한과 현지 조선어 방송을 합친 방송으로 이분화 시켜보면 비중국어 방송이 110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점은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라디오가 조선어를 가장 자주 접하게 하는 대중매체임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민족언어인 조선어를 사용하는 라디오 방송은 그들의 민족 정체감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3. 동료집단

#### (1) 소년선봉대(少年先鋒隊)

소년 선봉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 소년 선봉대”이며, 이 조직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영도하는 아동과 소년으로 이루어진 군중조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 직후인 1949년 10월 13일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년 아동대(소년 선봉대의 전신)를 조직했고, 1953년 8월 21일에 이를 중국 소년선봉대로 개명하였다.(中國共產黨 大辭典, 1991: 172) 이 조직에 가입하는 연령은 7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아동과 소년들이다. 소년 선봉대의 주요 임무는 아동과 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공공재물을 아낄 줄 알도록 지도하며 건강하고 성실하며 용감한 청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조선족 대학생들의 소년기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매체인 소년선봉대의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표 8>의 결과에서 절대다수 학생인 159명 즉, 98%가 그들이 과거 소

&lt;표 8&gt;

소년 선봉대와 공청단 가입여부

	예	아니오
소년 선봉대	159명(98%)	3명(2%)
공청단	148명(91%)	14명(9%)

년기에 소년선봉대의 군중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아동들은 한족 및 소수민족을 막론하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되면 대부분은 소년 선봉대에 가입한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은 중국 공산당의 위탁을 받아서 그들에 대해 사회주의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어린 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워 미래에 국가의 사회주의 사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들 역시 소년기 때의 그같은 기초적인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딘가?”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곧 “중국”이라고 답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2) 공청단(共青團)

공청단의 정식명칭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며,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청년 군중조직이다. 그 전신은 1922년 5월 광동성 광주(廣州)에서 설립한 “중국사회주의 청년단”이다. 그후 1925년 1월 상해(上海)에서 개최된 ‘3大’에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으로 개칭하여 항일 구국운동과 중국민족 해방의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수립후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단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1957년 5월에 다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내려온다. 공청단의 가입 대상은 14세에서 28세에 이르는 청년 및 대학생들이다.

위의 <표 8>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91%인 148명이 현재 공청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현실참여 의지와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 선봉대와 같이 공청단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당에 대한 열정과 지지를 평가해서 추천인의 소개가 있어야만 가입이 허락되며, 가입시에 하는 선서<sup>5)</sup>의 내용을 보면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지니기 때문이다.

공청단의 기본 임무는 공산주의 정신으로 청년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현대 과학지식으로 무장시켜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업의 후계자로 배양하는 것이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이 매우 중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군중조직으로 현 중국 당·정·군의 고급 간부중 공청단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조선족 대학

5) 공청단 가입시 선서의 내용은 “나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을 지원하며 공산당의 영도를 전적으로 응호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공청단의 결의에 충실히 따르고 단원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며 기울을 엄수한다. 또한 열심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업을 위하여 분투할 것을 선서한다.” 「中國共產黨大辭典」 p.173

생들은 그들의 공청단 가입은 중국의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서 예비적 활동과 엘리트 충원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청단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를 형성시키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4. 학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는 교사에 의한 공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국가·사회가 필요로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국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국민에 대한 사회화 기능인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감정주입, 사회적 성취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함양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국가적 정체감 및 현실참여를 진작시키는 1차적인 사회화 기구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

그처럼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치 사회화 기구인 학교에 관해, 본 절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외지대학이 아닌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을 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는 아래〈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을 선택한 이유

방법이 없어서	7명	4.3%
실력이 없어서	14명	8.6%
민족적 의식	45명	27.8%
학술적 사명감	34명	21.0%
통학이 편리해서	11명	6.8%
특별한 이유 없음	4명	2.5%
무응답	47명	29.0%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조선족 대학생의 상당수는 비록 중국에서 태어나 사회주의 교육과 다양한 경로로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겪었지만 민족 감정은 여전히 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조선 문화에 대한 높은 일체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전체 162명 가운데 응답한 학생 115명 중 45명(39%)의 학생들은 연변 대학 선택의 이유로서 “조선문화의 습득과 계승발전을 위해”, “고향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최고학부이므로” 등의 민족적 의식이라고 답했고, 그리고 두번째로 많은 34명(30%)의 학생들이 답한 이유인 학술적 사명감의 내용중에서 “조선어의 연구와 전파를 위해서”라는 민족적 의식기반 위

에서 답한 상당수의 학생들을 포함시킬 경우, 응답학생의 과반수 이상은 뚜렷한 민족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조사대상인 연변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중 상당수는 강한 민족적 정체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식의 일체감 정도는 위의 <표 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漢族 학교 수학 경력 유무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lt;표 10&gt;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을 선택한 이유

한족 학교 수학 무경험자		한족 학교 수학 유경험자		
방법이 없어서	6명	4.4%	1명	4.0%
실력이 없어서	10명	7.3%	4명	16.0%
민족적 의식	43명	31.4%	2명	8.0%
학술적 사명감	27명	19.7%	6명	24.0%
통학에 편리해서	2명	1.5%	9명	36.0%
특별한 이유없음	4명	2.9%	0명	0.0%
무응답	45명	32.8%	3명	12.0%

즉 한족 학교 수학을 경험한 학생들은 단순히 통학의 편리를 이유로 연변대학을 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족학교 수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족 의식을 그 이유로 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통학의 편리성 때문에 연변대학을 택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족 학교 수학 경험 유무는 민족 의식이나 민족 정체감 형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정치태도의 표출 (I)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 11期 3中全會에서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개혁·개방 정책하에서 농업·공업·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중국은 지난 17년 동안 경제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동시에 4개 현대화 정책은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등에도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은 중국 사회가 “현대화”的 물결에 휩쓸리면서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격동과 대규모의 변혁을 치른 시기에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은 개혁·개방세대 즉, 제 5세대들이다.

본 장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그들 사회에서 표출하는 정치

태도의 단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이들 대학생들의 사회의식, 정치의식 및 참여와 정치지도자상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1. 사회의식

본 절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대학생들의 정치 태도 표출의 기저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사회의식에 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설문지에서는 5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취업에서 가장 관건적인 요인

전문지식	109명	67.3%
인간관계	17명	10.5%
학력	15명	9.3%
출신배경	2명	1.2%
당성	2명	1.2%
무응답	17명	10.5%

이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조선족 대학생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며 당성이나 출신 배경은 각각 2명(1.2%)만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모택동 시대와는 판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당성과 출신 배경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다. 즉,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당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黑五類<sup>6)</sup>로 분류되어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며, 반면에 비록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당성이 좋고 紅五類<sup>7)</sup>로 분류되어 출신 배경이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족 대학생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중시하게 된 것은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후, 4개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와 밀접한 관계

6) 黑五類는 地主, 富農, 反革命分子, 不良分子, 右派分子를 지칭한다.

7) 紅五類는 勞動者, 中農이하의 貧農, 都市貧民, 革命幹部, 革命軍人을 지칭한다.

가 있다. 왜냐하면 4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다수의 전문적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며, 취업시 전문 지식을 강조하고 당성이나 출신 배경 등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졸업후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 장래 희망 직업

당정 관리	35명	21.5%
외국 합자 기업 직원	29명	17.9%
국유 기업 직원	29명	17.9%
관광업	15명	9.3%
자영업	5명	3.1%
교원	7명	4.3%
향진기업직원	4명	2.5%
농업	4명	2.5%
군인	2명	1.2%
의사	2명	1.2%
무응답	30명	1.5%

이 설문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조선족 대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은 당정 관리가 35명(21.6%), 외국 합자 기업 직원과 국유 기업 직원은 각각 29명 (17.9%), 관광업 15명(9.3%)의 순서로서 당정 관리와 국유 기업 직원이 조선족 대학생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 외국합작기업 직원, 개체호, 관광업 등 개혁 개방 정책하의 4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직업에 종사하고자하는 학생들이 53명으로서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회발전에

〈표 13〉

## 능력에 따른 지위 상승에 대한 태도

전적으로 찬성	60명	37.0%
약간 찬성	77명	47.5%
약간 반대	22명	13.6%
전적으로 반대	0명	0.0%
무응답	3명	1.9%

따른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우리 사회는 능력있고 노력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능력에 따른 出世觀을 나타내는 이 설문에서 보면 전적으로 찬성한 응답자는 60명으로서 37%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 출세의 기회가 아직은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존재하지 못하여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간 찬성이 77명(47.5%), 약간 반대는 22명(13.6%)이고 전적으로 반대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더 벌어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능력에 따른 수입증대에 대한 태도

전적으로 찬성	103명	63.6%
약간 찬성	37명	22.8%
약간 반대	16명	9.9%
전적으로 반대	4명	2.4%
무응답	2명	1.2%

능력에 따른 致富觀을 알아보기 위한 이 설문의 결과를 보면, 전적으로 찬성한 응답자가 103명(63.6%)과 약간 찬성을 한 응답자 37명(22.8%)을 합치면 140명으로 전체의 86.4%나 되는 것으로 볼 때,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관념을 응답자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족 학교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반대자가 한명도 없는데 비해서 한족 학교 수학 경험이 없는 학생중에는 약간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한 응답이 15%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족학교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보다 더 사회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번째,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일처리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문제 해결시 법률에 의존하는 태도

전적으로 찬성	15명	9.3%
약간 찬성	55명	34.0%
약간 반대	32명	19.8%
전적으로 반대	53명	32.7%
무응답	7명	4.3%

이 설문에서 보면, 전적으로 반대한 응답자가 53名으로서 32.7%에 불과하여 전체의 1%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간 찬성이 55名(34.0%), 약간 반대가 32名(19.8%)이고 전적으로 찬성이 15名(9.3%)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낮은 준법의식이 점차 변모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설문 결과는 또한 응답자의 전공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조문계 학생(전적으로 찬성 10.8%)의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조문계 학생(전적으로 찬성이 5.9%)의 약 2배가 되며, 비조문계 학생 중에는 사회과학 계통의 전공자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한 경우가 39.7%로서 조문계의 전적으로 반대 31.4% 및 비조문계중 외국어 전공자의 25%, 자연과학 전공자의 25%보다 크게 높았다. 이같은 사실은 사회과학 전공학생들이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데 대해 비교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서 비교적 그들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일처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정치의식 및 참여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대학생들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모두 6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표 16〉

다수 위주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대한 태도

전적으로 찬성	33명	20.4%
약간 찬성	51명	31.5%
약간 반대	52명	32.1%
전적으로 반대	22명	13.6%
무응답	4명	2.5%

했다.

첫째, “대부분 인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의 인민은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설문에서 보면, 응답자의 51.9%가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소수가 비판함을 용납하지 않는 즉, 異見을 지닌 소수에 대해서 비판용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한족학교 수학 유경험자 25명중 전적으로 찬성이 8명(32.0%), 약간 찬성이 7명(28.0%), 약간 반대가 9명(36.0%), 전적으로 반대가 1명(4.0%)인데 비해, 특히 한족 학교 수학무경험자 137명중에는 전적으로 찬성이 24명(17.5%), 약간 찬성이 44명(32.1%), 약간 반대가 43명(31.4%), 전적으로 반대가 22명(16.1%)이고 무응답자가 4명(2.9%)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생중 한족학교 수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정치 성향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한족학교 수학 유경험 학생중 본 설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은 60%이고, 반면 한족학교 수학 무경험 학생들은 49.6%임을 볼 때, 한족학교 수학 유경험 학생들이 비교적 비민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는 다수 인민의 의견보다 몇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통치할 때 발전된 다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엘리트 위주 통치에 대한 태도

전적으로 찬성	17명	10.5%
약간 찬성	38명	23.5%
약간 반대	30명	18.5%
전적으로 반대	70명	43.2%
무응답	7명	4.3%

統治觀에 대한 위의 설문결과를 보면, 찬성이 34%이고 반대가 61.7%로서 반대가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므로 조선족 대학생의 대다수가 소수에 의한 독선적인 통치 스타일보다는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중국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중국의 전통적 통치 방식인 人治보다 法治적인 통치방식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 및 정치 지식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본 설문지는 아래 2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신문중 관심있게 보는 내용은 어떤 기사입니까?”의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적으로 문화 및 예술(22.6%)에 대한 관심이

(표 18)

## 신문 중 관심 분야

국내정치	76명	16.7%
국내경제	55명	12.1%
국제정치	92명	20.2%
국제경제	50명	10.9%
국내사회	43명	9.4%
교육	43명	9.4%
체육 및 오락	37명	8.1%
문화 및 예술	103명	22.6%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정치(12.1%)나 국내경제(12.1%)보다 국제정치(20.2%)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은 가장 많게 나타났지만 조사 대상중 여학생이 3%이상이었고,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같은 사실은 남학생 49명의 경우는 “국내 정치 25명(15.2%), 국내경제 19명 (11.5%), 국제정치 35명(21.2%), 국제경제 25명 (15.2%), 국내사회 및 교육 18명(10.9%), 체육 및 오락 23명(13.9%) 그리고 문화 및 예술이 20명(12.1%)”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 매우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한편, 남·여학생 모두 국내정치나 국내경제 분야보다 국제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정치·경제(28.8%)와 국제정치·경제(31.1%)를 합하면 거의 60%로서,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국내외 정

(표 19)

## 정치 지식수준: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지도

정치 지식 수준	전체 (162명)	성 별		전 공			
		남학생	여학생	조 문	비 조 문		
					사회과학	외국어	자연과학
1 번	87명 (53.7%)	32명 (65.3%)	55명 (48.7%)	26명 (51.0%)	38명 (60.3%)	15명 (41.7%)	8명 (66.7%)
2 번	20명 (12.3%)	8명 (16.3%)	12명 (10.6%)	6명 (11.8%)	7명 (11.1%)	6명 (16.7%)	1명 ( 8.3%)
3 번	41명 (25.3%)	7명 (14.3%)	34명 (30.1%)	16명 (31.4%)	12명 (19.0%)	11명 (30.6%)	2명 (16.7%)
4 번	14명 ( 8.6%)	2명 ( 4.1%)	12명 (10.6%)	3명 ( 5.9%)	6명 ( 9.5%)	4명 (11.1%)	1명 ( 8.3%)

치 · 경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필요에 따라 조선족 대학생들이 국내외 정치 · 경제 문제에도 비교적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성명에 대한 인지 정도 즉, 정치지식 수준의 일면을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모두 4문제중 3문제 또는 4문제를 전부 정확히 기입했으면 1번, 2문제만 정확히 기입했으면 2번, 1문제만 맞게 기입했으면 3번, 그리고 모두 다 틀렸으면 4번으로 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위의 <표 19>의 조사 결과를 통해보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모두 107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지도 즉, 정치지식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전공 및 성별에 따라 정치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조문계 학생보다는 비조문계 학생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학전공 학생들보다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았다. 즉, 조문 전공자와 외국어 전공자는 1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51.0%, 41.7%이었지만, 자연과학 전공자는 66.7%, 사회과학 전공자는 60.3%로 다소 높았다. 또한 성별로 볼 때도, 여학생중 1번에 해당하는 비율이 48.7%에 반해서 남학생은 65.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치적 지식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래 2개 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현재 공청단원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공청단 참여 여부

예	148명	91.3%
아니오	10명	6.2%
무응답	4명	2.5%

공청단은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기구로서, 공청단의 가입은 중국의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예비적 활동과 충원 기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족 대학생들의 공청단 가입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표 20>의 결과에서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의 91.3%가 공청단원이라는 점은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정부도 소수민족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당신은 주위 사람들과 국내외 주요문제를 토론하기를 좋아합니까?”의 문항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국내외 현안에 대한 토론의 선호도

매우 좋아한다	31명	19.1%
좋아한다	60명	37.0%
보통이다	67명	41.4%
좋아하지 않는다	4명	2.5%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0명	0.0%

위의 〈표 21〉의 결과에서 보면, 조선족 대학생중 국내외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함께 있어서, 매우 좋아한다 31명, 좋아한다 60명 및 보통이다 61명등을 모두 합치면 158명으로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다. 그처럼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이 국내외 현안문제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 3. 정치 지도자상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상에 관해서 본 설문지는 “중국 정치지도자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이라는 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2〉 존경하는 중국 정치 지도자

주은래	56명	34.6%
등소평	48명	29.6%
호요방	1명	0.6%
모택동	17명	10.5%
강택민	7명	4.3%
팽덕희	2명	1.2%
전기침	1명	0.6%
이 봉	1명	0.6%
무응답	29명	17.9%

위의 통계에서 볼때, 연변조선족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중국 정치 지도자는 周恩來, 鄧小平, 毛澤東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지도자로서 그들 3인이 존경받는 이유는 우선,

周恩來는 건국 이전시기 즉, 중국공산당의 창당초기부터 성장 과정에 걸쳐,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공산당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西安 事變(1936년)을 제2의 국공합작으로 이끌었으며,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국·공 내전시기에서도 국·공협상에서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중국의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건국이후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있으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정치와 외교 등에 커다란 활약을 했다. 對外的으로는, 중국의 적극적 외교정책의 시도로써 1956년 반동會議를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중국을 제 3세계국가들의 지도자로 부상케 했고, 1970년대에는 미국, 일본 및 서구 각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더욱 높였으며, 對內的으로는 1950년대 反右派 투쟁, 大躍進 운동등 모택동의 급진·과격 정책이 야기시킨 각종 부작용을 원만히 수습함으로써 인민의 고통을 덜어 주었고, 1966년부터 1976년동안의 발생했던 문화대혁명의 와중에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으며, 동시에 4개 현대화 정책을 구상하여, 그가 죽기 바로 전인 1975년 제 4기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을 대표하여 그 강령을 제시하여 후에 실시된 등소평의 4개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주은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적인 정치지도자로 중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인민의 총리'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같은 추앙은 미래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鄧小平이 문혁후 권력을 장악한 후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3기 3中 全會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건설 즉, 4개 현대화를 추진한 이래 17년이 경과한 현재, 중국은 경제를 위시한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생산력은 크게 제고됐고,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중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대다수 중국인들은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4개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또한 등소평이 조선족 대학생들을 포함한 중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등소평이 1989년 6·4 천안문 민주화 시위때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유혈 진압했기 때문에 그의 명예가 커다란 손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의 개혁·개방정책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인들은 등소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개혁·개방을 주도해서 중국경제를 발전시켜, 국가의 국력과 자존을 높인 공헌이 먼저이고, 6·4 천안문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과오는 그 다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있다.

셋째, 毛澤東이 3위를 차지했는데, 그가 다소나마 조선족 대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비록 그가 문화혁명을 일으켜 중국 인민과 국가에 엄청난 재해를 초래했

으나, 장기간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여 1949년 신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역사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강택민과 전기침은 현재의 개혁 개방을 주도하는 지도자들로서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조선족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는 주로 개혁성향의 실용주의적 정치가들이란 점이다. 이는 주은래, 등소평과 강택민, 전기침등을 존경하는 지지율을 합하면 전체의 70%를 상회함에서 잘 나타난다.

#### IV. 정치태도의 표출 (Ⅱ)

본 장에서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 정체성의식, 민족 지도자상 및 한반도 통일관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식과 연관된 정치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민족 정체성 의식

본 절에서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 교육과 그에 필요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소수민족이면서 중국 국민인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정체성<sup>8)</sup> 의식에 대한 고찰을 위해 3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23〉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에 대한 태도

필요하다	131명	80.9%
필요없다	4명	2.4%
관심없다	10명	6.2%
무응답	17명	10.5%

둘째,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셋째,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이 필요없는 이유는?”이라는 설문에 대해서 전체 162

8) 본절의 주요 개념인 민족 정체성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심리적 영역 내지 경계로 집단내부에서는 동료의식을 조성하고 외부 집단으로부터는 그 집단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조선족 정체성 보존의 필요 이유

민족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76명	46.9%
독립국가의 필요성 때문	3명	1.9%
기타	14명	8.6%
무응답	69명	42.6%

명 학생 모두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3문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민족 정체성 보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에게 조선족의 정체성 보존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무응답자 69명을 제외한 93명의 응답자 중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76명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학생들의 전공, 성별, 성장지역, 부모 직업 및 한족 학교 수학 유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정체성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지니고 중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조선족의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발전을 도모케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를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중국은 1949년 10월 건국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1954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조는 소수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했고, 그에 따라 중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각종 우대를 받게 되었다. 그같은 소수민족 우대 정책하에서 소수 민족의 문화 전통과 유산의 보전, 민족 언어에 의한 민족 단위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었다. 그리고 자치지역에 대해서는 같은급의 일반 행정 단위에 비해 보다 강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인 힘을 부여했다(한상복, 권태환, 1994: 95).

그러나 중국에서 1958년 百家爭鳴이후 反右派 권력투쟁이 시작되면서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힘입었던 민족전통 및 문화에 대한 강조는 봉건적인 우파 이데올로기로 비판받았고 이에 따라 소수민족 지도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1966년부터 10년동안 지속된 문화 대혁명 기간에는 다시 지방 민족주의를 反혁명주의로 단정함에 따라 소수민족의 지도자들은 처형되거나 숙청되었다. 그처럼 좌경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할 때는 소수민족들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실패로 끝난

후 소수민족의 문화와 정체의식을 중요시하고 민족자치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정책은 다시 계승 되었다(한상복, 권태환, 1994: 95).

1982년 개정된 이른바 현법은 소수민족의 권익을 강하게 보장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1983년에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 기였던 胡耀邦은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6개 항목을 발표했다.

- 1) 민족지구 자치권 행사를 위한 여건을 보장한다.
- 2) 자치 지역 주민의 세금을 경감한다.
- 3) 소수민족 거주지에 융통성있는 지방 자치를 보장한다.
- 4) 자치지역의 생산증대 및 주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원조를 국가가 제공한다.
- 5) 민족 문화 교육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원조를 국가가 제공한다.
- 6) 지방 간부의 승진에 해당 민족 출신을 배려한다(이광규, 1994: 256 참고).

중국 정부의 그같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소수민족의 경제, 교육에 있어서는 물론,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족의 경제·사회발전 및 교육향상 등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과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조선족의 민족적 자긍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아무리 소수 민족 정체성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소수민족이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겠다는 민족적 긍지와 그에 따른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바꿔 말해서, 조선족의 민족적 긍지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보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때문에, 이에 양자의 상관관계를 아래의 3문항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첫째, “당신은 조선족인 것에 대해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표 25〉

민족적 자긍심

긍지가 있다	113명	69.8%
긍지가 없다	2명	1.2%
보통이다	43명	26.5%
무응답	4명	2.5%

둘째, “긍지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표 26〉

##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이유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69명	42.6%
경제능력의 우수함 때문에	1명	0.6%
교육을 중시해서	4명	2.5%
생활력이 강해서	14명	8.6%
예절을 중시해서	5명	3.1%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서	4명	2.5%
무응답	65명	40.1%

셋째, “긍지가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표 27〉

## 민족적 자긍심을 못갖는 이유

무응답	155명	95.7%
소수 민족의 무력감	5명	3.1%
남북의 분단	1명	0.6%
민족의 불단결	1명	0.6%

위의 세 문항의 설문 결과에서 보면, 조선족 대학생 162명중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는데(〈표 25〉 참조), 이같은 현상은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이 민족 정체성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 정체성의 유지는 민족적 긍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족 대학생들이 민족적 긍지를 느끼는 이유는, 응답자 97명중 69명(71.1%)이 민족적 우월성을, 14명(14.4%)은 생활력의 강함, 예절을 중시함은 5명(5.1%),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남과 교육을 중시함이 각각 4명(4.1%) 및 경제능력의 우수함은 1명 (1.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그러나 조선족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의 기반위에서 민족 정체성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중 일부의 학생들은 소수 민족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표 27〉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대다수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중국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소수민족우대정책과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적자긍심이 강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민족 지도자상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 지도자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설문지에서는 1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즉, “조선족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에 대한 답은 아래 <표 28>과 같이 나타났다.

<표 28>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	
고대인물	16명	9.9%
근대인물	8명	4.9%
현대 조선족인물	36명	22.2%
현재 남·북한인물	25명	15.4%
무응답	77명	47.5%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 지도자상을 분석하기 위한 <표 28>의 조사 결과에서, 응답한 학생들은 민족 지도자로서 현대 조선족 지도자들을 가장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대 및 근대 인물보다 현대 조선족 및 남·북한 인물들을 더욱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항의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조선족 자치주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4유형으로 분류 했다 .

### 1. 고대인물(16명)

을지문덕, 김유신, 이성계, 세종대왕, 이순신, 박문수

### 2. 근대인물(8명)

김구, 안중근, 윤동주, 김형직, 홍범도

### 3. 현대 조선족 인물(36명)

석산린, 김학철, 주덕해, 조남기, 조용호, 문시장, 임민호, 정판룡, 전철수

### 4. 현대 남북한 인물(25명)

박정희, 김일성, 김영삼, 김우중, 정주영

고대 인물들은 주로 나라를 빛낸 국왕과 외적을 물리친 유명한 장군들로서 그 중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근대 인물중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인물은 할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의사이다.

한편 현대 조선족 인물들은 주로 중국사회에서 출세한 고위관리 및 군인, 작가, 기업가, 연변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정판용, 주덕해, 석산린, 김학철 등의 순서이다. 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정판용은 연변대 부총장을 역임했고 이봉과 모스크바 대학 동창생이다. 주덕해는 연변 자치주 대표였으며,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후보 위원이었으나 문화대혁명 시 숙청된 고위 공산당원이었다. 석산린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개인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가이다. 그리고 김학철은 팔로군 출신으로 항일혁명 기간중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으며, 문혁 기간중 숙청을 당했다.

현대 남북한 인물중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남·북한의 정치지도자 및 기업가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변 조선족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남북한 지도자중 남한 지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sup>9)</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중국의 조선족에게 있어서 조국은 북한 뿐이었다. 그리고 남한은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한의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존경 받는 인물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1980년대초 이래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가속화함에 따라 한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상호간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한의 경제발전이 알려지고 북한은 더욱 더 낙후된 모습을 보이게 됨에 따라 남한의 지도자들이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김일성이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운동을 하였고, 따라서 연변지역 사람들의 反日 정서에 부합하며, 중국의 모택동처럼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를 건립한 후 장기간 영도한 최고 지도자였다는 점 등의 강한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박정희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정치 지도자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김영삼은 한국과 중국의 국가 지도자 정상회담 등을 통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헌 및 김영삼정권 초기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함 등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심화과정에 있는 중국정부와 언론 등에 의해 여러차례 보도됨으로써 비교적 높은 존경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한반도 통일관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들의 한반도 통일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설문지는 2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남북한 통일은 바람직합니까?”

9) 응답자 25명의 “존경하는 남북 지도자”에 대한 순위는 김일성 9명, 박정희 7명, 김영삼 6명, 김우중 2명, 정주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29〉

남북통일에 대한 찬반 태도

예	145명	89.5%
아니오	10명	6.2%
무응답	7명	4.3%

〈표 30〉

남북 통일 방안

남한식 민족화합 방안	48명	29.6%
북한식 고려연방제 방안	16명	9.9%
기타	61명	37.7%
무응답	37명	22.8%

둘째, “조선반도의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습니까?”

조선족 대학생들의 한반도 통일관을 분석하기 위한 2문항의 설문중 첫째 설문 결과인 〈표 29〉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162명 학생중 145명(89.5%)의 학생들이 남·북통일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남·북통일은 조선족에게 민족적인 긍지를 고무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서이다. 둘째, 남·북통일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의 비중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조선족이 중국내의 소수민족중에서 차지하는 민족적 서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인 〈표 30〉에서 남한식 민족화합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학생(48명)들이 북한식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학생(16명)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서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같은 현상은 상당수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북한식의 사회주의 체제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리적 이반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측 통일방안이 비록 북한측 통일방안보다 약 3배나 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북합의에 의한 절충적 방안,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방안, 관심없음 및 통일의 비현실성 등의 다양한 기타 의견<sup>10)</sup>을 제시한 학생들이 61

10)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타 61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북 합의에 의한 평화적 방안을 주장하는 학생이 21명, 중국 정부의 대 홍콩 및 마카오 통일방안인 일국 양제를 주장하는 학생은 6 명, 모르겠음 또는 관심 없음의 태도를 보여준 학생은 6명이고, 한반도 통일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학생이 4명으로 나타났다.

명으로서 전체 162명 학생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타 방안을 제시한 학생(61명)과 무응답 학생(37명)들을 합하면 전체의 60%를 넘는 98명에 달하는 사실은,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과반수가 넘는 대학생들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비교적 낮은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된다.

## V. 요약 및 결론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의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제 2장에서 먼저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 요인에 관해, 언어 생활, 대중매체, 동료집단 및 학교를 통해서 고찰했다. 그리고 제 3장 정치태도의 표출 (I)에서 중국 국민인 조선족 대학생들의 사회·정치의식 및 정치참여와 중국 정치지도자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정치태도를 분석했으며, 제 4장 정치태도의 표출 (II)에서는 대학생들이 조선족으로서 지니고 있는 민족 정체성 의식, 민족 지도자상 및 한반도 통일관 등 민족의식과 연관된 정치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변자치주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요인에 관한 고찰 및 정치태도의 표출(I, II)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1) 조선족 대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중국어와 조선어중 조선어의 사용빈도가 중국어 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중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대중매체와의 접촉 빈도에 있어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매스컴에 접촉하는 빈도는 텔레비전이 7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 응답자 162명 중 102명이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프로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고정적인 프로의 내용은 1. 국내 뉴스, 2. 드라마, 3. 문학 프로, 4. 경제 상식, 5. 스포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고정 시청프로의 유무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1. 문학 예술, 2. 국제 정치 경제, 3. 국내 사회 교육, 4. 체육 오락, 5. 국내 정치 경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이 조선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을 동시에 보고 있고 중국어 신문만을 보는 학생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 기사중 가장 관심있게 보는 내용은 문화 예술, 국내 정치 경제, 국제 정치 경제, 국내 사회 교육, 체육 오락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TV와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이 첫번째를 차지했으나, 국제 정치, 경제에 앞서서 국내 정치, 경제가 두번째의 위치를 차지하여 TV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라디오의 경우는, 신문과 함께 대중매체로서 조선어에 대한 접촉빈도가 매우 높은

매체이다. 가정에서 주로 청취하는 라디오 방송중 가장 많이 청취하는 방송은 현지 조선어 방송으로 58명이며 그 다음은 현지 중국어 방송으로 52명, 남한 단파 방송을 듣는다는 학생이 48명, 북한 단파 방송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중국어와 비중국어 (즉, 현지 조선어 방송과 남북한 단파 방송)로 이분화해보면, 중국어 방송이 52명 조선어 방송이 110명으로서 중국어 방송을 듣는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라디오 전파가 현지의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가장 자주 접하게하는 대중매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소년 선봉대와 공청단은 일종의 특수한 사회화 기구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당에 대한 열정과 지지를 평가하여 추천인의 소개가 있어야만 가입이 허락된다. 이 두기구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화를 실시하여 사회주의 엘리트를 양성하여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두 기구에 절대 다수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과거에 가입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소수 민족에게도 평등하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이들이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일체감을 지니도록 사회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4) 사회화 기구로서 학교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국민의 사회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목표로 하는 것도 개인의 재능 뿐만아니라 구성원 사이, 국민과 정치 지도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교환과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주입, 사회적 성취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높이고 공민으로서의 능력과 참여도를 진작시키는 사회화 기구이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체에 의거하여 자기의 희망에 따라 조선족 학교나 한족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교육과 그에 필요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문화적으로도 조선문화에 대한 높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연변 대학생을 통해 조선족 대학생들의 교육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조사 대상자 162명중 137명이 조선족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았고 25명이 한족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한족 학교에 다닌 경험의 유무는 민족의식이나 민족 정체성 형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5) 조선족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먼저, 직업관에 있어서 학생들이 중시하는 것은 전문지식이며, 인간관계, 당성 및 출신 배경 등은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관리, 외국 합작기업 직원, 국유기업직원, 관광업, 교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세관에 있어서 조선족 대학생들은 사회적 계층 이동의 기회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부관에 있어서는 절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이 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일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준법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의 준법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의 준법의식정도를 다시 전공별로 보면 조문계학생보다 비조문계학생들이 높게 나타났고 비조문계중 특히 사회과학 전공 학생이 외국어 전공 및 자연과학 전공학생보다 크게 높았다.

(6)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및 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먼저, 조선족 대학생중 반수 이상이 다수의 의견에 대한 소수의 비판을 허용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같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異見을 가진 사람에 대해 관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의 민주의식이 비교적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통치관에 있어서는 전체 조선족 대학생중 62%의 학생들이 소수지도자에 의한 통치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人治적 통치방식보다 法治에 의한 민주적인 통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은 남녀학생 모두 국내 정치나 경제분야보다 국제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것은 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성명에 대한 인지도 즉, 정치지식의 일면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공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즉 조문계학생보다는 비조문계학생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전공자보다 더 높았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정치지식이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조선족 대학생중 절대다수(97.5%)학생들이 국내외 현안 문제들에 대한 토론하기를 좋아한다는 태도에서 그들의 정치참여의 성향이 보여 진다. 또한 전체학생중 91.3%가 현재 공청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알 수 있다.

(8)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지도자상의 조사에서 존경하는 중국의 정치지도자는 주은래, 등소평, 모택동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답한 정치지도자 8명중 개혁·개방 성향의 지도자들은 5명으로 전체의 70%를 상회함에서, 학생들이 현 중국의 실용주의적 지도자들과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조선족 대학생들의 민족정체성 의식조사에서 그들의 전공, 성별, 성장지역, 부모직업 및 한족 학교 수학유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보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민족전통문화의 계승

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10) 조선족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근대 이전의 민족 지도자는 주로 나라를 빛낸 국왕과 외적을 물리친 유명한 장군 및 항일 투쟁을 한 인물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은 안중근이다. 현재 조선족 인물은 주로 중국사회에서 출세한 고위관리, 군인, 작가, 기업가 및 교육자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은 정판룡, 주덕해, 석산린, 김학철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현대 남북한 인물은 남북한의 정치지도자 및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족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남북한 지도자 가운데 김일성을 제외한 모두가 남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한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상호간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 남한의 경제 발전이 알려지고, 북한이 더욱 더 낙후된 모습을 보이게 됨에 따라 남한의 지도자들이 서서히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11) 대다수 조선족 대학생들은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남북통일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고 둘째,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는 중국내의 소수민족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라는 점에서 민족통일을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한식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의 비율이 북한식 통일방안보다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연변자치주의 조선족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심리적 이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비록 남한측 통일방안이 북한 방안보다 3배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남측 통일 방안과 북측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보다 기타 의견이 61명으로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반수 이상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낮은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이 연변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 대학생의 정치태도의 전모이다. 상술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로 평가와 전망을 해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족 대학생들이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민족 언어인 조선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국과 같이 漢族의 文化가 고도로 지속적이고 주변의 소수민족에 대하여 우월한 위치를 점해온 경우에 있어서 소수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사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어는 민족 문화를 표현하고 지속 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때 漢族에게 무력으로 정복당했거나, 역으로 漢族政權을 일시적으로 정복하여 중원을 지배한 이민족 중에서 그들 고유의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대부분 漢族에게 同化되어진 사실에서 언어의 중요성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선족 대학생의 민족 정체성의식이 강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조선어보다 중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그같은 현상이 앞으로 그들이 조선어를 경시하고 심지어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전된다면 민족 정체의식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둘째, 본 논문의 제 2장에서 분석한 그들의 정치태도를 형성하는 제요인 즉 정치사회화의 제 기구를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받아온 결과, 조선족 대학생들은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국가 정체에 대해서 강한 일체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의식, 정치관심, 정치지식 및 참여등에 연관된 조사를 통해서 개혁·개방세대이자 제 5세대인 조선족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및 성향은 과거 모택동시기의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정치 위주의 정치태도에서 탈피하여 비록 그 정도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개방사회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정치태도로 점차 변모해가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조선족 대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형성된 국가 정체의식의 기초에서 당면한 국가 정책인 경제건설에 대해서 일체감을 지니고 있다. 그같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정체에 대한 조선족 대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보편적 지지태도는 그들의 정치의식 및 성향을 정치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개혁·개방적 정치태도로 서서히 전환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조선족 대학생들이 중국이라는 정치체계의 구성원임을 감안할때, 현재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는 중국사회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 대학생들의 이러한 변모는 비단 조선족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생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사실은 조선족 대학생들이 모범적인 중국 국민으로서 중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떻게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균형있게 잘 유지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조선족 대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인 것이며 이는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전체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 〈참 고 문 헌〉

강명상

1988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서울: 융성출판사  
김광억 편

1987 『중공 한국교민 자료집』. 서울: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김계수 외 (공저)

1985 『현대정치 과정론』. 서울: 법문사

심의섭 · 최용학 · 강희정

1994 『중국 동북 경제론』. 서울: 삼문사.

어수영 · 한배호

1987 『韓國 政治 文化』. 서울: 법문사

연변대학 <21세기로 달리는 중국 조선족>총서 편찬위원회 편

1994 『중국 조 선족 우렬성 연구』. 연길: 연변 인민출판사

이광규

1994 『在中韓人』. 서울: 일조각.

이채진

1988 『중국인의 조선족』. 서울: 청계 연구소.

이호철 · 신승철 · 이동근

1994 『연변 조선족 사회의 정신의학 연구』. 서울: 토담.

조정남

1988 『중국의 민족 정책』. 서울: 교양사.

한상복 · 권태환

1994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서울대 출판부.

홍승직 편

1988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구』. 서울: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Allport, Gordon W.

1929 "The Composition of Political Attitude," American gournal of Sociology VOL.  
XXXV:220-238

Almond and Verba.

1963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Dawson, Richard E, Prewitt, Kenneth and Dawson, Karen.

1977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Kavanagh, Dennis.

1972 *Political Culture*, London: Macmillan.

Langton, Kenneth P.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ye, Lucian W, Verba, Sidney.

1965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Wilson, Richard W.

1986 *Learning to be Chinese*, 丁庭宇譯, 中國兒童與政治 臺北: 桂冠圖書公司。  
中國共產黨 大辭典編撰委員會編

1991 『中國共產黨大辭典』. 北京: 國際廣播出版社.

陳文俊

1983 『中學生的政治態度及其形成因素』. 臺北: 資訊教育推廣中心推進會 出版部  
陳義彥

1979 『台灣地區大學生政治社會化之研究』. 臺北: 德誠書店.

**부록****〈설문지〉****연변朝鮮族 大學生의 정치태도에 대한 研究**

**안녕하십니까?**

본 問卷은 순수 學術的 연구자료로서만 이용되며 기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 의견은 대외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래의 문항에 관하여  
당신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回答해 주시고, 만약 제시된 보기 중  
에 본인의 의견과 같은 항이 없으면 표시란에 의견을 써주십시오.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출생년도	19 년
年 級	( ) 년	專 業	( )
나는 조선족 ( ) 대	주로 성장한 곳	<input type="checkbox"/> 城市 <input type="checkbox"/> 鎮 <input type="checkbox"/> 鄉	
중국 이주 제 1 대의 고향은? ( )			
有否讀過 漢族學校?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讀過幾年? ( ) 년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 래 보기에서 번호를 고르십시오.		부친 ( ) 모친 ( )	
보기 : ①醫生,教師,工程師等 專門職 ②黨政관리 ③外國合作기업 직원 ④國有기업 직원 ⑤鄉鎮 기업 직원 ⑥飼 貿 ⑦農, 漁, 獵, 伐木人 ⑧旅遊業 ⑨軍人 10個體戶			

1. 한어와 조선어중 어떤말이 더 사용하기 편합니까?  
조선어 한어 똑같다
2. 현재의 專業은 누구의 의견으로 택했습니까?  
부모 본인 선생님 친구
3. 外地의 대학이 아닌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4. 少年先鋒隊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5. 현재 共青團員입니까?  
예 아니오
6. 校內의 社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다 안한다
7. 참여하고 있는 社團활동의 名稱 또는 내용을 써주십시오.  
 ( ) )
8. 社團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주 1-2회 월 1-2회 학기중 1-2회 1년에 1-2회
9.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조선어 한어 혼용
10. 주로 보는 신문은?  
조선어 신문 한어 신문 둘다 본다 보지 않는다
11. 신문은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매일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번 거의 안본다
12. 신문중 관심있게 보는 내용은 어떤 기사입니까?  
국내정치 국내경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내사회 · 교육  
체육 · 오락 문화 · 예술
13. 가정에서 주로 듣는 라디오 방송은?  
조선어방송 한어방송 남한방송 북한방송
14. TV節目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국내정치 국내경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내사회 · 교육  
체육 · 오락 문화 · 예술
15. 가장 자주 접하는 언론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16. 매일 고정적으로 보거나 듣는 節目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7. 고정 節目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8. 원하는 職業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학력  전문지식  黨性  인간관계  출신배경

19. 대학 졸업후 갖고 싶은 직업은?

黨政官吏  國有기업 직원  鄉鎮기업 직원  外國合作기업 직원

個體戶  旅遊業  軍人  醫生  農業

20. 당신은 주위 사람들과 국내외 주요문제를 토론하기를 좋아합니까?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보통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21. 토론한다면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까?

국내정치  국내경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내 사회·교육

기타

22. 현재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의 이름은? ( )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회 의장의 이름은? ( )

政協 전국위원회 주석의 이름은? ( )

黨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의 이름은? ( )

23. “우리 사회는 능력있고 노력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4.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만큼 돈을 더 벌어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5. “대부분 인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의 인민은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6.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이 빠르고 현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7. “사회는 다수 인민의 의견보다 몇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통치할 때 발전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8. 당신은 조선족인 것에 대해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궁지가 있다  궁지가 없다  보통이다

29. 궁지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

30. 궁지가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

31. 조선족의 正體性(認同) 보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하다  필요없다  관심없다

32.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33. 필요없다면 그 이유는?(                        )

34. 조선족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점(                        )

단점(                        )

35. 조선족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써 주십시오(                        )

36. 중국 정치 지도자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37. 남·북한 통일은 바람직 합니까?

예       아니요

38. 조선반도의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한식 민족화합 방안  북한식 고려연방제 방안

기타(                        )

問卷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 Study on the Political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of Korean Descent in Yan Bian Chinese Korean Autonomous Region

Yung-Keun Koh, Yoon-Soo Cho, In-Soo Park

Since 1978, by pursuing reform and opening policy,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truly remarkable. It brought a rapid change in every field. So it brought the Chinese society into an unprecedented change. Under this circumstances, it is very interesting and meaningful to study how this present Chinese-Korean students express their political attitudes. So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political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n descent in Yan Bian Chinese-Korean Autonomous region, China. This is based on the first-hand materials gather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Chinese-Korean students of Yan Bian university informally conducted in the City of Yan Ji, Yan Bian Autonomous Region. As everyone knows, the Chinese-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Yan Bian Region are both Chinese nationals in nationality and Koreans in ethnicity, who belong to one of minority ethnic groups in China. So they have two sides; one of them is their national identity as the national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other their ethnic identity as Koreans. The investigation of the expression of their Political attitudes, therefore, is divided in two parts. The expression(I) of their political attitudes is analysed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national identity as the Chinese nationals, and the expression(II) of their political attitudes is analysed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ethnic identity as Koreans, one of the minority ethnic groups.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n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the Chinese-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Yan Bian Autonomous Region. This involves an investigation of how their political attitudes are formed by agents of socialization in China, namely, the life of their language, mass media, communist youth League, and the school. The second part offers an analysis of the expression of their political attitudes. This includes an investigation of their soci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ir images of ideal Chinese political leaders.

The third part is an analysis of the expression(H) of their palitical attutudes. This is an examination of their ethnic identity as Koreans, their images of ideal Korean national figures, and their view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고영근, 부산외대 중국어과 교수

주소 : 부산 광역시 수영구 광안 4동 오양 평구 아파트 1동 206호

Tel : 집(051)751-2480, 연구실(051)640-3099

조윤수,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주소 :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 2동 우성 아파트 7동 701호

Tel : 512-0722

박인수, 울산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주소 :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 아파트 101동 1503호

Tel : 722-5166